

# “동심 잡아라”... 유통업계, 문구·완구 할인전 ‘풍성’

이마트, 또봇 등 인기캐릭터 선배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단독 행사 홈플러스, 완구류 최대 80% 할인

5월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지역 대형마트들이 동심을 저격한 문구·완구 할인 경쟁에 나섰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가정의달 맞이 어린이날 문구·완구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다음달 6일까지 또봇, 티니핑, 핑크퐁 등 캐릭터 완구부터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 닌텐도와 PS5 등의 디지털 가전까지 풍성하게 준비했다.

대표 상품으로 ‘또봇 트윈펀치’와 ‘또봇 A 아이오닉 6’를 행사카드 결제 시 20% 할인 판매한다. 인기 캐릭터인 티니핑의 ‘새콤달콤 티니핑 빌리지마트’를 행사카드 결제 시 20% 할인하고 ‘알송달송 티니핑 미스틱하트링’은 신세계포인트 적립시 행사가에 판매한다. 또 어린이날 선물로 인기인 레고를 최대 30% 할인하는 ‘레고 클리어런스’도 함께 진행한다. 자동차 장난감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브루더’에서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실제 차량 설계도를 바탕으로 1:16 비율로 축소된 ‘브루더 MAN 덤프트럭’은 신세계포인트 적립시 3만원 할인 판매한다.



홈플러스는 5월5일까지 완구류를 최대 80% 할인하는 ‘완구 페스티벌’을 연다.

홈플러스 제공

또 MZ세대 키덜트(Kidult, kid+adult)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꾸미기 트렌드’를 반영한 가방 꾸미기 아이템인 ‘헬로키티 50주년 키링·봉제인형’ 20여종도 준비했다.

이마트는 어린이날 선물 구입 부담을 덜고자 행사카드를 문구·완구 상품(서적·퍼즐류 제외)을 7만원 이상 전액 결제 시 1만원 할인도 지원한다.

롯데마트 토이저러스는 고물가에도 어

린인날 선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달 5일까지 인기 브랜드 완구 약 2500여 품목을 최대 70% 할인 판매하며, 행사 카드로 완구 상품 6만원 이상 결제 시 1만원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대표 상품으로 레고 200여개 품목 최대 40% 할인하고, 레고 전 품목 10만원 이상 구매 시 ‘브릭 파우치&키링세트’를 증정한다. 헬로키티, 터닝메카드는 최대

20%, 주라기월드는 최대 60% 할인하며 다양한 신상품들도 선보인다. 또 캐치티니핑의 ‘티니핑 새콤달콤 티니핑 빌리지마트’와 대표 영유아 완구 ‘타요 컨트를 주차타워 디럭스’는 각 20%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토이저러스만의 단독 상품도 준비했다. 어린이날 특별 기획 상품 ‘또봇 SOS 스페셜 컬러팩’은 40%, ‘실바니안 비밀다락방 이중집 스페셜세트(5727)’는 10% 할인 판매한다. 디즈니와 협업해 첫선을 보이는 DIY 완구 ‘디즈니 메이킹스키시’는 4만원대에 제공한다.

어른이 고객을 겨냥한 행사도 진행한다. ‘닌텐도 스위치 OLED 마리오 레드’와 ‘플레이스테이션 5 디스크 슬림 본체’를 3만원 할인하고 ‘닌텐도 스위치 타이틀 52종’은 최대 1만원 할인 판매한다. 또 30년 이상 꾸준한 인기를 자랑하는 짱구 캐릭터 상품 모음 행사도 진행, 행사 상품 4만원 이상 구매 시 ‘짱아 코타츠 방한제’를 토이저러스 41개 매장에서 1000개 한정량으로 증정한다.

홈플러스도 같은 기간 ‘어린이날 완구 페스티벌’ 행사를 진행한다.

홈플러스는 어린이날을 맞아 2700여종의 완구 상품 최대 80% 할인과 상품권 증정 행사,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어린이들의 BTS로 불리는 캐치티니핑을 다양한 구성으로 선별할 수 있는 캐치티니핑 럭키박스를 정상가에서 70% 할인해 1000개 한정량으로 선보이며, 캐치티니핑 슈가베리팩트, 빌리지마트, 빌리지주스가게 등 인기 3종 상품은 5만 원대부터 판매한다. 또 인기 레고 100여종을 최대 40% 할인한다. 용의 해 기념 출시로 인기를 끌고 있는 레고 ‘상서로운 용(80112)’ 상품은 할인점 단독으로 판매하며, 레고 전 품목 10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레고 브릭파우치와 키링세트’ 증정품을 제공한다.

어린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로 손꼽히는 게임기 할인 행사도 마련했다. 닌텐도 스위치 OLED본체 2만원 할인과 인기 타이틀 24종을 15% 할인하며, 닌텐도 조이콘 7종은 9000원 할인 판매한다. 소니 PS5 본체 슬림 에디션 역시 2만원 할인한다.

이와 함께 헬로키티 50주년 한정판 산리오 캐릭터즈 제품과 살리오 블록 10여종 20%, 산리오캐릭터즈 메이커 4종 20%, 미미·쥬주 인기상품 20여종 최대 30%, 뽀로로·타요·슈퍼윙스 등 유아완구 50여종 최대 30% 및 직수입 RC카 10여종 카드30% 할인 등 다채로운 할인 행사가 준비돼 있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 금호타이어, 유럽시장 공략 강화 나섰다

밀라노서 유럽 딜러사 초청 행사

금호타이어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금호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데이(KUMHO Driving Experience Day)’를 개최했다.

지난 21일 금호타이어는 유럽 딜러사를 대상으로 이탈리아 밀라노 바이라노 서킷(Vairano Circuit)에서 금호타이어 제품 성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금호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데이’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 임승빈 영업총괄 부사장, 이강승 유럽본부 전무, 조만식 연구개발본부 전무, 윤장혁 G.마케팅담당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금호타이어와 유럽 딜러사 간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업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5년간 유럽시장에서 연평균 20%이상의 꾸준한

매출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전년 대비 약 44% 증가하며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러한 매출 성장에는 유럽 시장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R&D) 전략이 유효했다. 최근 금호타이어는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데아체(ADAC), 아우토빌트(AutoBild)에서 실시한 타이어 성능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증명했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프리미엄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탈리아의 명문 축구 구단 ‘AC 밀란(AC Milan)’의 홈구장인 산 시로 스타디움에서 AC밀란과 인터밀란의 경기를 관람했다. 특히 이번 경기는 스페셜 스폰서를 위한 빅매치 데이 이벤트로 마련되어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했다.

최권범 기자

## 광주상의, ‘오사카 잡화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공동으로 광주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고자 ‘2024 일본-오사카 선물용품 잡화 전시회 단재관’ 참가 기업을 오는 5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2024 일본-오사카 선물용품 잡화 전시회(Life Style Week Osaka)’는 전세계에서 3만5000여명이 방문하는 일본 종합 소비재 산업 최고의 전시회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오사카 인텍스 전시장에서 열린다.

다양한 국가에서 520여 기업이 참가하는 이번 전시회는 식품류, 선물용품, 패션 액세서리, 플라워소품, 향·아로마, 헬스·

뷰티 등 선물용품과 소비재 잡화가 총망라되며,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전시회에 참가하여 자사 제품을 전시하고 바이어들과의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시회 참가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전시회 참가비의 80%, 참가자 항공료의 70%(최근 3년 이내 참가기업은 50%), 바이어 상담을 위한 통역료 100%와 편도 물품 운송료 100% 등을 지원받게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www.gicci.or.kr/>)에서 참가신청 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 후 이메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350-5862) 최권범 기자

## “청정 완도산 다시마와 보해 소주가 만났다”



보해, 다시마 활용 ‘다시, 마주’ 출시 15.8% 저도수·제로슈거 레시피 적용 ‘지역상생 우수사례’ 해수부장관 표창

보해양조(대표 임지선)가 세계 최초로 해조류 중 하나인 다시마를 핵심 주재료로 한 소주 ‘다시, 마주’를 출시했다.

29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제품명인 ‘다시, 마주’는 ‘다시마를 활용해 만든 소주’라는 의미와 함께, 사람들이 다시 서로를 마주해 가치 있는 순간을 공유하는 소망을 담았다.

지역 고유 원료를 활용해 새로운 맛을 선보이려는 보해의 노력과 동시에 제품이 사람들 간 대화와 만남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다시마가 음식에 들어가면 더욱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듯, 소주에서는 특유의 쓴맛과 자극적인 알코올을 취는 털어내고 부드러운 끝 맛을 선사하는 역할을 해준

다. 그간 해조류를 활용한 맥주, 막걸리 등은 출시돼 왔으나 국내에서 다시마를 활용한 주류는 처음이며, 특히 소주에 접목한 사례는 이번이 세계 최초다.

360ml의 용량에 알코올 도수는 15.8%로 꾸준히 부상하는 저도주 트렌드에 발맞췄다. 또 과당을 넣지 않은 ‘제로슈거’ 소주로 보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이번 신제품은 보해양조가 레시피 개발을 위해 2023년 초부터 완도군 및 완도금일수협과 협력해 온 지역 상생의 결실이다.

지난 17일에는 완도금일수협과 맺은 다시마 소주 개발 협약(MOU)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선진 사례로 인정받으며 ‘완도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해양수산부장관 표창도 수상했다.

‘다시, 마주’는 다시마 산지인 완도 지역에서 먼저 출시되며, 추후 판매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권범 기자

## 기아 EV9 ‘2024 레드 닷 어워드’ 최우수상 수상

기아 EV9이 ‘레드 닷 어워드(Red Dot Award)’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다시 한번 우수한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현대자동차·기아·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는 ‘2024 레드 닷 어워드:제품 디자인 부문’에서 최우수상 1개를 포함해 총 4개의 제품이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레드 닷 어워드는 세계 3대 디자인 상 중 하나로 매년 제품 디자인,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콘셉

트 부문에서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한다. 제품 디자인 부문에서는 디자인의 혁신성과 기능성 등 엄격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최우수상과 본상을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기아의 EV9은 제품 디자인 부문 중 ‘수송 디자인’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3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금상을 받은 바 있는 EV9은 이번 수상으로 세계 3대 디자인 상 가운데 2개를 휩쓰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기아는 2022년 EV6에 이어 다시 한번 레드 닷 어워드 제품 디자

인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쥐는 쾌거도 기록했다.

EV9은 작년 출시 이후 우수한 상품성과 디자인으로 세계 올해의 자동차와 북미 올해의 차 등 글로벌 수상 세례를 이어가고 있다. EV9은 기아의 디자인 철학 ‘오퍼핏 유나이티드(Opposites United, 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의 정수를 담은 모델로 미래지향적이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

현대차는 2023년 선보인 5세대 싼타페로 본상을 수상했다. 제네시스의 GV80 쿠페도 혁신적인 제품 디자인으로 본상을 수상했다. 최권범 기자